

북

고려시대 된장국엔 두부가 없었다

식전-팬더곰의 밥상견문록

장인용 지음



우리에게 '밥'의 의미는 각별하다. "밥 먹었니?"로 인사하고 "식사나 하지"로 사람을 만나며 백일상, 둘상, 생일상 등으로 날을 기념한다. 심지어 죽어서는 망자와 후손이 제사상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식전(食傳)-팬더곰의 밥상견문록'은 한국인 밥상문화에 대한 해설서다. 팬더곰이라는 애칭을 쓰는 저자 장인용(지호출판사 대표)씨는 "음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여러 요소가 혼합된 인간 문화의 정수"라며 한국인의 밥상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책은 우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즐기는 입맛이 언제부터 생겼으며 시대에 따라 문화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옛 사람도 우리와 같은 된장찌개를 먹었을까?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쌀밥, 배추김치, 된장국 등 흔히 한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도 고려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에 없거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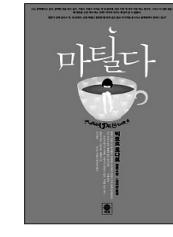
또한 쌀이 보리, 조 등을 제치고 주곡이 된 것은 고려 시대 이후의 일이며 배추도 16세기에 들어서 서야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된장국은 고려 시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두부가 들어 있는지 않았다. 두부를 먹기 시작한 때는 고려 시대였다.

순가락 변천사도 재밌다. 고려 말, 조선 초만 해도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형태와는 달리 순가락의 끝

사진=장인용 저자 제공



▲책을 읽을 자유='로자'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이현우 한림대 연구교수가 2000~2010년 10년간 언론 매체에 연재한 서평을 한데 모았다. 147편의 서평을 고양이란 무언인가, 고전은 왜 읽는가, 행복이란 무언인가 등 30개 주제별로 묶어 소개했다. 저자는 "책을 읽을 자유는 최소한의 자유지만 동시에 최고급의 자유"라고 말한다. <현암사·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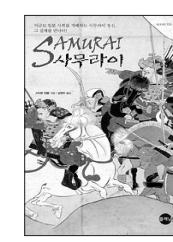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어른으로 커간다. <비체·1만2000원>



▲마틸다=시와 희곡으로 명성을 얻은 빅토로로다토가 죽은 언니의 삶을 과제로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쓴 성장소설. 모든 이의 부려움을 사던 언니가 누군가에 밀려 기차사고로 죽고, 마틸다는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는다. 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틸다는 사랑과 성에 눈을 뜨고 죽음과 이별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다른

<현암사·1만8000원>



▲B급 좌파 세 번째 이야기='B급 좌파','나는 왜 불운한가', '가장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까지'의 저자 김규항씨의 신작. 5년 만에 출간하는 그의 세 번째 칼럼집이다. 그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별칭이자 그의 첫 저작의 제호와 동명인 이 책은 2005년 여름부터 2010년 봄까지 블로그 규향넷을 비롯해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시사저널' 등

<리더스하우스·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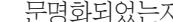


▲사무라이=스티븐 털불 영국 리즈대 교수가 주제를 위해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고 전투에 임했던 일본 사무라이(영주를 호위하는 무사)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보며 일본 사회 저변에 깔린 사무라이 정신의 뿌리를 추적한다. 사무라이의 흥망을 다루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플래닛미디어·1만9800원>



▲창조의 심장 '우뇌'=2005년 출간된 '우뇌가 희망이다'의 개정판으로 최신 뇌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의 신비의 힘과 우수성에 관해 분석했다. 우선 한국의 우뇌형 사회의 어떤 측면이 20세기 산업사회를 그만이나와 따라 잡을 수 있었는지부터 분석한다. 그리고 요즘은 좀처럼 한국형 자력을 폭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 해

결론으로 창조의 심장 '우뇌' 카드를 꺼내든다. <풀잎·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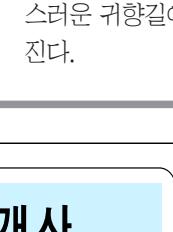
▲잭 구디의 역사인류학 강의=역사인류학자

잭 구디가 가족, 음식, 사랑, 문화 등 삶과 밀착된

키워드로 세계 문화의 발달 과정을 읽어낸다. 저자는 요리, 남녀의 사랑이 단지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요리에는 조리법과 입맛은 물론 계급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사랑 역시 사회 구성원의 정신이 어느 정도

문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 문자는 요리와 사랑을 촉진하는 매개체라고 설명한다. <산책자·2만3000원>

<산책자·2만3000원>



▲핵전=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나 고향 토리노로 돌아가기까지 9개월간의 여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 중언문학의 대표작인 전작 '이것이 인간인가' 이후 15년 만에 발표한 작가의 두 번째 작품으로, 고통스러운 귀향길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에 얹힌 사연이 펼쳐진다. <돌베개·1만4000원>

<돌베개·1만4000원>

철학자들의 논쟁 부른

공간·시간의 수수께끼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다양한 역설과 논쟁을 제기한 로빈 러프 아드 빙 영국 리즈대 교수의 철학 입문서 '4차원 여행-공간과 시간의 수수께끼'가 번역·출간됐다.

'공간과 시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철학자와 과학자를 곤궁에 빠뜨렸던 수수께끼를 파헤친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아우구스티누스, 라이프니츠, 칸트, 맥태거트 등 학자들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공간과 시간 개념이 얼마나 많은 케변과 역설, 논쟁을 불러왔는지 되짚는다.

<해나무·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복지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 투자용)

■토지 590평 건물 4,000평 (매입200억 보증금 10억 / 월세 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각 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토지 164평 건물 558평 (매각 1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또한 쌀이 보리, 조 등을 제치고 주곡이 된 것은 고려 시대 이후의 일이며 배추도 16세기에 들어서 서야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된장국은 고려 시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두부가 들어 있는지 않았다. 두부를 먹기 시작한 때는 고려 시대였다.

순가락 변천사도 재밌다. 고려 말, 조선 초만 해도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형태와는 달리 순가락의 끝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입대를 냄새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신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내권 및 시외순회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태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입대를 냄새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 0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근처)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금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방 금매

(192m² 58평)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계 약 금 •

5613만원 납부

매 매 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금매

062) 364-1613

010-9005-2223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 1층이 옷매장들

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

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평 100평 매물(다량보유)

구함: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단지,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보유하고 있음

첨단지구 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 주택,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구: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 (다수보유)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이때마다 전화 주십시오★

T. 971-4911 / H. 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장)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광산 구신동 계획도로로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매도 398천

• 주유소 광산구 땅 419평 용자 5억 교환가능 10억

대지, 월동동 토리부근 4차선도로변 492㎡(149평) 공시지가 5억

7천평 매도 4천430만원

• 금남로5가 대지 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8천

<p